



김선화 신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명나는 연구현장 조성에 일익 담당할 터”

■ 대담 | 이근영 _ 본지 편집위원 kylee@hani.co.kr

■ 대담일시 | 2006년 6월 26일

❶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앞섭니다.

20년이 넘게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고민해 온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하여 과학기술계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❷ 청와대 발표 뒤 많은 분들이 선임 과정과 배경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분인지 가장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하다 못해 무관심해졌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인물평을 내놓았습디만, 속 시원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속공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포항제철연구

지난 5월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김선화 순천향대 공과대학장이 선임됐다.

김선화 보좌관은 “신소재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의 접목에

관심이 많은 소재 전문가로서

차분한 성품에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나 있다.

참여정부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보좌역할을 한 그를 본지 7월호에서 만나본다.

- 편집자 -

소에 취업해 산업현장에서 일을 했고, 박사학위를 마치고는 정부출연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업과 공동으로 실용화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살아있는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학·연 모두에서 두루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에서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산자부 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 정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오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학장을 맡고 있어서 행정적인 경험도 가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설,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참여정부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이나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과 같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이러한 주요 과학기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이나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와 같은 과학자와 미래 주역들이 미래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실험실에서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우리 나라 연간 R&D 예산이 9조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미시적인 예산조정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의 통합 기능을 강화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관련하여, 과학기술 재권 발행을 통해 확보되는 2천400여억 원이 대부분 출연연구기관에 배정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지난해는 혁신본부가 출범 이후 첫번째로 수행한 R&D예산조정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R&D 관련 부처들과의 조율을 통한 새로운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R&D투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정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R&D예산조정과 제도개선 등 범부처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재원은 2천252억 원으로 이중 73.4%(1천652억 원)는 바이오신약장기 등 출연사업에, 17.7%(400억 원)는 출자사업에, 8.9%(200억 원)는 용자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출연연구기관에 배정된다는 비판은 출연사업에 투입

된다는 표현의 전달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기금 계획안에 따르면 출연사업에 배정된 1천652억 원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인 과기부 바이오신약장기사업에 155억 원, 산자부 성장동력사업에 1천360억 원, 대형실용화사업인 해수부 위그선 사업에 72억 원, 과기부 일체형원자로 사업에 6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모두 실용화에 근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10월을 목표로 '국가 R&D 사업 중장기 토털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처럼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조합하는 수준의 로드맵으로는 정부 차원의 집중력과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털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전체의 R&D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R&D전략' 수립의 일환입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R&D 관련 중장기계획이 40개나 됩니다. 여기마다 부처마다 굵직굵직한 R&D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기존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조합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R&D환경과 역량, 수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국

가차원의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정한 후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 통상협상 과정에 국가 지원 성과물의 민간 이전에 대한 문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해석돼 통상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굳이 응용분야에 투여해 민간과 중복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과 민간 연구개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생각하신지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나라 정부 R&D 투자가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정립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한·미 FTA나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같은 국제규범의 특징은 정부의 지원이 시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민간에서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민간부문은 단기간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화나 기업화 관련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본부)는 예산의 조정과 배분시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투자가 활발한 분야의 정부투자를 축소하고, 기초연구와 보건의료·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부문에 대한 R&D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2.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2%)보다 높음에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를 보면 증가는 몇몇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투자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우리 나라의 R&D 투자규모는 25조 원에 달합니다.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선진국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논문과 특허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피인용도 등 연구개발 성과



의 질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무역수지도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목적지향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전문연구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금년 예산으로 51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온 결과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 수가 지난 해 1만 개를 돌파하여 전체 기업부설연구소의 90% 이상(91.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학기술부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퇴직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정부의 노력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태부족이라고 봅니다. 정년 연장과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 출연연 연구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더 가속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난 6월 16에 대덕에서 있었던 출연연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께서 정년과 연금문제에 대해 건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을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출연연은 물론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에서 석·박사급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대학과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비정규직 중



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 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좌관은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계신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보좌역할을 하고, 대통령과 관계부처와의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나 혁신본부, 정통부의 고유 정책은 소관 부처의 장께서 수립하여 집행하고, 저는 관련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현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거운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여쭙보겠습니다. 서울을 떠나 공부를 한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한국잠수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인연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고, 실력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다른 취미는 없으신가요?

고향에서 활동하게 된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다만 고향에서 근무하다보니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였습니다.

스킨스쿠버는 단지 바닷속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를 위한 준비과정은 힘들지만 일단 바닷속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듭니다. 아직 실력은 초보를 약간 벗어난 수준입니다.

그 밖에 시간이 되면 여행 다니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틈이 나면 뮤지컬 등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D**